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음 10월 28일) 제19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거 좋네요...” 도내 창업기업제품 살펴보기 14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북START-UP 성과 교류회에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창업기업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

전북도는 2017년 한해, 전북의 미래를 선도할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변곡점을 가져올 토대를 마련해 전주탄소국가산단 예타 통과로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도 SOC 분야 국가예산 99개 사업에 1조 915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심의단계에서 정부예산(안)보다 새만금 국제공항 5억, 새만금~전주 동서 남북도로등 1,050억, 전주역사 전면개선 10억 증액 등 1,844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의 미래를 선도할 공항 철도 건설은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하늘 길을 열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도, 공항·항만·도로 등 교통망 확충 변곡점 토대 마련

내년도 SOC분야 국가예산 99개 사업에 1조9153억원 확보

새만금국제공항·전주역사 전면개선 등 1944억 증액 성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2월말 공사발주 예정이다.

새만금 내부도로인 동서도로(공정율 47%)에 이어 남북도로도 1단계 사업은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2단계는 내년 1월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된 5개 신규사업(부안~흥덕, 임실~장수, 무주~설천, 소양~진안, 화산~윤주) 모두 국가예산(25억)에 반영(총사업비 5.172억원)되어 교통도 지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흥사~연정, 해리~부안 등 내

년 국도 13개 계속사업에 831억원, 쌍치~산내 등 국지도 3개 사업에 257억원(국비188, 도비 69)의 예산을 확보됨에 따라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이동거리 단축, 물류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군산항 활성화 화로는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호안 축조공사가 연말 본격 추진되고 군산항 신규항로 개설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했다.

이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43개 지구 42.4km의 하천을 정비, 19개소 39.3km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특히 국토부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에 2개

소가 선정, 국비 22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4,695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5,757호의 노후주택 개보수 등을 완료, 상·하수도, 도로 230km에 대한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을 추진, 국도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75개소 26km(5.2%)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203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올해에는 공항, 항만, 철도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서축 도로망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며, “무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의 동서축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북도와 정치권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니다.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격 조건
신입기자(취재, 정규직)	본사 0명	해의여행에 경력사육이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미세먼지 걱정 'NO'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전주시, 7대 구입 시범 운행 내년부터, 구입하는 시민에 1대당 250만원 보조금 지원

전주시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에 나섰다.

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대기환경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이고 기동성이 확보된 전기이륜차 7대를 구입해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이륜차는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일반 전기콘센트에서 3~4시간 정도면 쉽게 100% 충전된다. 또, 무소음, 배출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하루 40km 주행시 1년간 연료비가 엔진 이륜차의 10% 수준인 7~8만원에 불과해 뛰어난 경제성도 갖췄다.

시는 이번에 구입한 전기이륜차를 하천과 재해 시설물 점검 등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현장 활동 부

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친환경 전기이륜차의 민간 보급을 위해 내년부터는 환경부 보급령가 인증을 받은 6종의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는 차종에 상관없이 1대당 25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60대 분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1억5000만원도 확보했다.

차량가격은 380만원~59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130만원~34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수 있다./김민근 기자

도, 도청 광장 명칭 공모

전북도는 내년 1월 12일까지 '전라도 천년의 해, 청사광장의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전북도 청사광장의 명칭을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광장 명칭은 부르기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칭 등 이미지와 특성이 잘 표현돼야 한다.

신청방법은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이용해 이메일(j26011@korea.kr),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응모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